

## 他藥受害例 연구

유준상

삼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 Abstract

#### A Study on the Side Effects of Using Herbal Medicine Assigned to a Different Constitutional Type

Yu Jun-Sa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 1. Purpose

Sasang constitutional herb medicine is known as specific to his own's constitution. So other constitutional herb medicine can induce side effec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side effects of other constitutional herb medicine.

##### 2. Methods

Literature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chapters including harm to other constitutions in the books "Dongyisasangjinryoeuijeon(東醫四象診療醫典)" and "Joeuihak(朝醫學)". And the causes of side effects were studied in terms of herbology and movements of Qi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3. Results

Herb medicines of Taeumin's have the dispersing Qi energy, so Soeumin could have side effects mostly and some of Soyangin could do. Herb medicines of Soeumin's have the warming Qi energy, so Soyangin could have side effects like dermatitis or fever. Herb medicine of Soyangin's have cooling Qi energy, so Soeumin could have side effects of digestive system like diarrhea and some of Taeumin could do.

##### 4.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herb medicine is safe and less harmful when herb medicine is prescribed and taken according to his own constitution.

**Key Words** : side effect, Sasang, constitution, Sasang consitutitonal medicine

- 본 논문은 2007년도 삼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angji University Research Fund, 2007)
- 접수일 2009년 06월 20일; 심사일 2009년 07월 05일;  
승인일 2009년 08월 01일
- 교신처: 유준상 202-70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 삼지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033)741-9203, FAX:(033)741-9141,  
E-mail: hiruok@dreamwiz.com

## I. 緒 論

사상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체질별로 구분이 되어서 혼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1</sup>.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甲午本을 거쳐 辛丑本으로 오면서 혼용되던 약물들은 약물의 성질을 강화하거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保命之主를 키우기 위한 사상처방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혼용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sup>2,3</sup>. 黃連猪肚丸 처방설명에서 소양인처방구성에 태음인 약물인 麥門冬이 하나쯤 들어가는 것은 무방하다 하여 가혹하게 논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체질별로 구분해서 약을 쓰게 된다. 임상에서는 체질진단시 問診에서 기존에 복용했던 한약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고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 자료로서 『東醫四象診療醫典』의 他藥受害例<sup>4</sup>가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고에서는 『東醫四象診療醫典』의 他藥受害例를 바탕으로 타 체질에 四象藥物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타 문헌을 비교 검토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東醫四象診療醫典의 문헌적 성격

杏坡 李泰鎬 先生이 1940년 행림서원을 운영하면서 사상의학에 관계된 책들을 모아서 1941년(辛巳年)에 출판한 책이다. 그는 引用書目에서 『東醫壽世保元』은 물론 당시에 유통되던 사상의학 관계서적을 모아서 책을 펴냈다고 하며, 許奎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고 적었다<sup>4</sup>.

서문은 『東醫四象新篇』의 서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적었고, 서문은 天德山人이 적어 주었다고 되어 있다. 체계는 四象概論, 四象各論(四象人의 類型鑑別), 四象臨床學, 四象處方學, 經驗例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상개론에서는 사상의학의 우월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사상체질이 기존의 한의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였다. 사상각론에서

는 『金匱秘方』, 『東醫四象新篇』, 『東醫壽世保元』을 참고하여 체질의 감별 및 체질의 특성을 기록하였다. 특히 證治詩括이라고 해서 表病, 裏病의 證治를 七言絶句로 기록하였다. 사상임상학에서는 『東醫四象新篇』의 내용과 거의 같고, 근소한 차이만 있다. 각 病證門에 總訣이라고 해서 병증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七言絶句로 기록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각 病證門에서 病證에 대한 기존 한의학적 해설과 현대병명과의 연결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中風에 대해서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뇌일혈, 뇌출혈증 중에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다고 하기도 하였다. 사상처방학에서는 각 처방에 대한 구성, 功用은 『東醫四象新篇』의 것과 거의 같다. 다만 便誦訣이 추가적으로 있어, 처방의 적응증과 구성약물, 용량을 알기 쉽게 해 놓았다. 편송결은 『朝醫學』에 나오는 便誦訣과 大同小異한데, 차이는 한약의 명칭과 용량에 대해서 李泰鎬 선생이 미리 책의 앞부분에서 略語 定義를 해 놓고 그에 준하여 바꾼 내용이다. 經驗例에서는 東武經驗例라고 해서 『東醫四象新篇』의 「四象經驗」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後學經驗例라고 하는 부분은 甲午本과 『東醫四象新篇』에 나오는 처방을 중심으로 어떤 병증일 때 어떤 처방을 쓴다고 일대일로 적응을 해 놓은 것이다.

이중에서 他藥受害例는 사상개론의 사상약리학 부분에서 四象藥性歌, 四象人要藥 다음에 他藥受害例가 나오고, 다음에 隨症加減法이 있다.

金良洙 先生 등에 의해서 이 책은 연변에 전해져서 朝醫學으로 연결되었다<sup>5</sup>.

### 2. 他藥受害例

『東醫四象診療醫典』에 나오는 他藥受害例를 기록하면 아래와 같다. 『朝醫學』에는 각 체질에서 복용하면 해를 볼 수 있는 약물 중심으로 적혀 있으며, 아래 약물 중 몇 가지만을 적어 놓고 있다<sup>6</sup>.

#### 1) 太陰人藥

- ① 葛根 [少陽人] 口逆 [少陰人] 呃氣
- ② 大黃 [少陰人] 泄瀉
- ③ 麻黃 [少陰人] 口渴, 汗多, 惡寒
- ④ 使君子[少陰人] 呃氣

- ⑤ 生牛肉[少陰人] 痢疾
- ⑥ 皂角[少陽人] 口逆

2) 少陰人藥

- ① 桂枝[太陽人] 陽毒升[太陰人] 陽毒升
- ② 雞肉[少陽人] 陽毒發斑
- ③ 當歸[太陰人] 泄瀉
- ④ 附子[少陽人] 熱升毒, 惡寒
- ⑤ 人參[少陽人] 熱升毒
- ⑥ 沈香[少陽人] 口渴
- ⑦ 巴豆[太陽人] 腸痛泄瀉

3) 少陽人藥

- ① 甘遂[太陰人] 胸燥煩痛[少陰人] 口渴, 泄瀉
- ② 輕粉[少陰人] 腹痛
- ③ 蕎麥[少陰人] 浮氣生
- ④ 菘[少陰人] 泄瀉
- ⑤ 靈砂[少陰人] 手足厥冷[太陰人] 口渴
- ⑥ 梨子[少陰人] 呃氣
- ⑦ 石膏[少陰人] 痰盛泄瀉[太陰人] 手足厥冷
- ⑧ 水銀[太陰人] 眩暈[少陰人] 腹痛
- ⑨ 柴胡[太陰人] 汗不止[少陰人] 汗不止
- ⑩ 豬肉[少陰人] 滯動風
- ⑪ 知母[少陰人] 大害
- ⑫ 黃栢[太陰人] 小便閉[少陰人] 口逆
- ⑬ 黃連[少陰人] 頭痛

Ⅲ. 考 察

사상약물은 서로 혼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체질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타 체질 약물 사용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東醫壽世保元』에서도 少陽인이 蘇合元을 薑湯에 먹어서 문제가 된 경우 및 약간의 언급이 있으나<sup>7</sup>, 각 單味 약물에 대해서 정리된 것은 없었으나, 1941년 출판된 『東醫四象診療醫典』에는 少陰인은 18가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적혀 있고, 太陰인은 8개 약물에 대한 부작용, 少陽인은 6개 약물에 대한 부작용, 太陽인은 2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적혀 있다. 『東醫四象診療醫

典』은 연번으로 전해져서 四象을 연구하는 교제에 사용되었고, 『朝醫學』에 편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朝醫學』에는 少陰인에게 15개 약물에 대한 부작용, 少陽인이 5개 약물에 대한 부작용, 太陰인이 6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적혀 있으나, 太陽인에 대한 부작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sup>6</sup>.

본 논고에서는 각 체질별 약물을 타 체질이 복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本草學的 측면과 保命之主, 氣의 升降緩束에 관한 기전, 부작용 부위를 고찰해 보았다.

1) 太陰人 약물에 대한 고찰

① 葛根은 肺, 胃經에 작용하고, 性이 平 無毒하며, 味는 甘辛하다. 갈근은 升陽解肌, 傷寒의 頭項強痛에 사용하며, 淸陽의 氣를 고무시켜 上行시키므로 生津止渴에 사용한다<sup>8</sup>. 그러나, 少陽인은 氣가 上行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므로, 葛根을 복용하면 氣가 위로 치받아 嘔逆이 일어날 수 있다. 少陰인은 上行하는 氣는 적은 편이므로 嘔逆보다는 약하게 딸꾹질(呃氣)정도로 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② 大黃은 脾, 胃, 大腸, 肝, 心包經에 작용하고, 性이 寒 無毒하고 味는 苦하다. 瀉熱通腸의 효과가 있어서 實熱便秘에 사용한다. 大黃은 血虛氣弱하거나 脾胃虛寒한 경우는 禁忌이다<sup>8</sup>. 따라서 少陰인은 脾胃가 虛寒하고 氣弱한 경우가 많으므로 大黃을 사용하면 泄瀉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李濟馬先生도 『東醫壽世保元』에서 大黃에 대해서 殺人之藥이라고 酷評하기도 했다.

③ 麻黃은 肺, 膀胱經에 작용하고, 性이 溫 無毒하고 味는 辛微苦하다. 發汗散寒, 宣肺平喘, 利水消腫의 효과가 있고, 表實無汗의證에 사용한다. 表虛自汗이나 肺虛喘咳에는 禁忌이다<sup>8</sup>. 麻黃은 太陰인처럼 肌肉이 堅實하고 背佳頁表病의 경우에 사용가능하지만, 少陰인처럼 肌肉이 약하여 조금만 땀이 나면 亡陽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麻黃을 사용하면 안 된다. 李濟馬先生도 『東醫壽世保元』에서 麻黃은 少陰人藥이 아니라 단언하였다. 麻黃을 少陰인에게 사용하면 땀이 많이 나게 되고 이로 인해 渴症이 나고, 살갗의 陽氣가 소실되어 惡寒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④ 使君子는 脾經, 胃經에 작용하고, 性은 甘溫하고 無毒하다. 殺蟲消積하고 健脾療疳의 효과가 있다. 소아의 形體가 마르고 腹部가 팽창하고 面萎黃한 경우 人蔘, 白朮 등의 健脾益氣藥에 배합해서 사용한다. 大量을 복용하면 呃逆, 眩暈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sup>9</sup>. 그러므로 少陰人처럼 脾胃기능이 허약한 경우는 使君子를 복용할 때 딸꾹질(呃逆)이 나타날까 생각할 수 있다. 使君子에 대해 李濟馬 先生은 少陽人 肥兒丸 처방을 설명하면서 使君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약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10</sup>.

⑤ 生牛肉(쇠고기 날것): 우육은 性은 溫하고 平하다. 맛은 달고, 독이 없다. 脾經, 胃經에 작용하고, 脾胃를 보양하고 氣血을 보익하며 근골을 강하게 한다. 虛損羸瘦, 消渴證을 치료하고 腰膝痠軟을 치료한다. 『本草綱目』에서는 氣를 補하는 것이 黃芪와 효능이 같다고 하고, 병이 表에 있을 때는 吐하게 하면서 痰이 나게 하고, 淸道에 있을 때는 吐하게 하여 제거하고, 濁道에 있을 때는 泄瀉를 시켜서 제거한다고 하였다<sup>11</sup>. 익혀 먹을 경우는 鰓齧을 듯하지만, 쇠고기가 날것일 경우 少陰人에게 설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⑥ 阜角은 性이 溫하고 味가 辛하며 無毒하다. 肝經, 胃經에 작용하고 消腫排膿, 治風殺蟲의 효과가 있다. 楊子瀛는 여러 가지 藥의 上行을 도울 수 있고, 上焦病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1</sup>. 따라서 少陽人의 경우 기운이 위로 상행하면 좋지 않으며, 性味가 溫辛하므로 少陽人에게 기운이 逆上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嘔逆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少陰人 약물에 대한 고찰

① 桂枝는 性味가 辛甘溫하며 無毒하다. 心經, 肺經, 膀胱經에 작용하며, 發汗解肌, 溫通經脈, 通陽化氣의 효과가 있다. 溫熱病이나 陰虛火旺, 血證 등에는 禁忌이다. 通陽化氣의 효과가 있어서 太陰人의 경우가 부작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太陰人의 保命之主가 呼散之氣이므로 사용한다고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肝燥熱證의 경우

에는 桂枝가 辛溫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少陽人에게는 辛甘溫한 性味에 通陽化氣하는 효과로 熱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太陽人에게는 保命之主인 吸聚之氣에 反하는 효과이며, 上焦의 胃脘之氣가 상승하도록 도움으로서 熱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朝醫學』에는 陽毒發斑으로 되어 있다. 熱毒이 올라오면 發斑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② 鷄肉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다. 脾經과 胃經에 작용하고, 溫中, 益氣, 補精, 添髓하는 효능이 있다. 모든 實證과 邪毒未淸한 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 많이 먹으면 生熱動風한다고 하였다<sup>11</sup>, 『東醫寶鑑』에서도 중풍환자들은 먹지 말도록 하였다<sup>12</sup>. 少陽人은 병이 생기면 火와 熱이 주로 생기므로 生熱하는 닭고기를 먹으면 熱毒이 심해지고 심하면 두드러기(陽毒發斑)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③ 當歸는 性이 溫, 無毒하고, 味는 甘辛하다. 肝經, 心經, 脾經에 작용하며,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腸通便의 효과가 있다. 濕阻中滿者 또는 大便溏泄者는 모두 慎用한다고 하였다<sup>9</sup>. 太陰人의 경우 胃脘寒證의 경우 濕이 많고 대변이 묽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當歸를 복용하면 설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④ 附子는 性이 熱 有毒하고, 味가 辛甘하다. 心經, 脾經, 腎經에 작용하며, 回陽救逆, 補火助陽, 溫中止痛, 逐風寒濕邪의 효과가 있다. 附子는 辛熱 燥烈하여 陰虛火旺, 眞熱假寒에는 禁忌이다. 잘못 투여하면 口鼻出血, 瘰癧 등의 중독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少陽人은 陰虛하고 火나 熱이 많은 체질이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중독증상이 심해지면 부정맥, 혈압강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惡寒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거의 최후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된다. 『朝醫學』에는 少陽人의 附子에 대한 반응으로 惡寒은 적혀 있지 않고 發熱升毒으로 되어 있다<sup>6</sup>.

⑤ 人蔘은 性이 微溫 無毒하고, 味는 甘微苦하다. 脾經, 肺經, 心經에 작용하고, 大補元氣, 固脫生津, 安神의 효과가 있다. 陰虛陽亢으로 인한 潮熱骨蒸, 火鬱內實證에는 복용을 忌한다고 하였다<sup>8</sup>.

少陽人은 火나 熱로 인한 병이 많으므로, 人蓼을 투여하면 發熱과 熱毒이 올라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⑥ 沈香은 性이 溫 無毒하고 味는 辛苦하다. 腎經, 脾經, 胃經에 작용하고, 降氣溫中, 暖腎納氣의 효과가 있다. 氣虛下陷과 陰虛火旺者에는 慎用한다고 하였다<sup>8</sup>. 沈香은 辛香性溫하고 溫中하므로 少陽人이 복용하면 口渴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부작용이라 생각된다.

⑦ 巴豆는 性은 熱하고 大毒이 있으며, 味는 辛하다. 胃經, 大腸經으로 작용하며, 瀉寒積, 破癥瘕, 逐水消腫, 逐痰, 殺蟲의 효과가 있다. 巴豆의 성질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熱粥을 복용하여 藥力을 보조케 하는데<sup>8</sup>, 性味가 辛熱한데 火나 熱이 많은 少陽人에게 투여하면 腹痛, 泄瀉가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 3) 少陽人 약물에 대한 고찰

① 甘遂는 性이 寒하며 有毒하고 味는 苦하다. 肺經, 腎經, 大腸經에 작용하며, 瀉水逐陰, 消腫散結의 효과가 있다. 氣虛, 傷陰, 脾胃衰弱者 및 孕婦는 복용을 忌한다고 하였다<sup>8</sup>. 따라서 脾胃가 虛弱한 少陰人이 복용한다면 泄瀉를 하게 되고, 口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太陰人은 肝, 小腸의 吸聚之氣가 과다해지고 肺, 胃脘의 呼散之氣가 약화되면 肝熱肺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sup>7</sup>, 甘遂로 인해서 逐水를 시킨다면 肺燥가 더욱 심해지고 胸燥煩痛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② 輕粉은 性은 寒 無毒하며, 味는 辛하다. 大腸經, 小腸經에 작용하고, 外用하면 殺蟲, 攻毒, 斂瘡하고, 內服하면 祛痰消積, 逐水通便한다. 體弱者나 妊婦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8</sup>. 少陰人은 脾胃虛弱하고 氣虛한 경우가 많으므로 복용하면 腹痛이나 泄瀉를 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③ 蕎麥은 메밀로서, 현재는 太陽人의 藥餌로 생각하고 있다<sup>7</sup>. 메밀은 性이 寒하고 味가 甘하다. 降氣寬中하고 積穢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脾胃가 虛弱하여 服藥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복용하게 되면 頭眩이 생긴다고 하였다<sup>13</sup>.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는 浮氣가 생긴다 하였고, 『朝醫學』에

서는 浮腫病이 생긴다고 하였다<sup>6</sup>. 너무 강하게 내려 주려고 하는데 내려가지 않을 때는 그에 반대되는 작용으로 頭眩이나 浮氣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本草求真』에서는 大黃을 잘못 사용해서 내려가지 않을 것을 쓸어서 밀어내리려 하였는데 반대로 熱結이 되어 없어지지 않으면 그 해가 적지 않다<sup>13</sup>고 하였듯이 上升하는 기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④ 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東醫寶鑑』에서는 西瓜(수박)와 舌甘瓜(참외)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수박은 性이 寒, 味甘淡 無毒하다. 煩渴과 暑毒을 없애고 寬中, 下氣하고 小便을 잘 나오게 하며 血病과 口瘡를 다스린다고 하였다. 참외는 性이 寒하고 味甘 有毒(혹은 無毒)하다. 渴症을 그치고 煩熱을 없애며 小便을 잘 나오게 하며 三焦의 壅塞한 氣를 통하게 하며 口鼻의 瘡를 다스린다. 많이 먹으면 宿冷病이 動하고 배를 부수고 팔다리가 무력해진다고 하였다<sup>14</sup>. 『本草求真』에서도 만약 脾胃가 평소 虛弱한 사람이 食생활이 지나쳐 渴症이 생긴 경우 아침 저녁으로 수박을 먹으면 胸膈이 막혀 위로 치반고 泄瀉하거나 ぶ거나 脹滿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3</sup>. 少陰人은 평소 脾胃가 虛寒한 경우가 많으므로 瓜를 먹게 되면 泄瀉를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⑤ 靈砂는 황화제이수은(HgS)을 98%이상을 함유한 것으로<sup>15</sup>, 朱砂와 성질이 비슷하다. 性은 微寒하고 有毒하며, 味는 甘하다. 心經에 작용하고, 鎮心安神, 定驚解毒의 효과가 있다<sup>8</sup>. 성질이 차기 때문에 少陰人에게 투여하면 手足厥冷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太陰人에게 口渴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⑥ 梨子是 배로서, 여기서는 少陽人에게 이로운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太陰人에게 이로운 음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sup>7</sup>, 『東醫寶鑑』에서는 性은 寒(혹은 冷)하며 味는 甘酸 無毒하다. 客熱을 제거하고 心煩을 그치게 하며 風熱을 消除하고 胸中의 熱結을 다스린다고 하였다<sup>14</sup>. 『本草求真』에서는 元氣의 바탕이 實하고 평소 대변이 굳어 야 배를 먹을 수 있다고 하였고, 元氣가 虛弱한 사람이 먹으면 대개 속이 寒해진다고 하였다. 배는 원래 冷하고 下利시키는 약물이어서 이를 복용하면 배속

이 더욱 寒冷해진다고 하였다<sup>13</sup>. 따라서 성질이 찬 것을 이용한다면 少陰人에게 적합한 듯 보이며, 少陰人이 먹는다면 소화는 안 되거나 딸꾹질(呃氣)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된다.

⑦ 石膏는 性이 大寒하고 無毒하며 味는 辛甘하다. 肺經, 胃經에 작용하고, 生用하면 解肌清熱, 除煩止渴하고, 煨敷하면 生肌斂瘡한다. 脾胃가 虛寒하고 血虛, 陰虛로 發熱이 있는 者는 복용을 忌한다고 하였다<sup>8</sup>. 따라서 脾胃가 주로 虛寒할 수 있는 少陰人에게 투여하면 泄瀉가 될 수 있고, 痰盛은 아마도 寒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太陰人에게 투여하면 手足厥冷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⑧ 水銀은 性이 寒하고 味는 辛하며 有毒하다. 心經, 腎經, 肝經에 작용하고, 攻毒殺蟲의 효과가 있다<sup>8</sup>. 少陰人은 脾胃虛寒한 경우가 많아서 성질이 寒한 水銀을 복용할 경우 腹痛이나 泄瀉를 유발하리라 생각된다. 太陰人은 부작용으로 眩暈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水銀中毒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⑨ 柴胡는 性이 微寒하고 無毒하며 味는 苦하다. 肝經, 膽經에 작용하고, 和解退熱, 疏肝解鬱, 升舉陽氣하는 효과가 있다. 虛人의 氣逆이나 陰虛火旺, 肝陽上升者는 응용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sup>8</sup>. 『本草求真』에서는 病邪가 太陽經에만 있을 경우 柴胡를 쓰는 것은 시기상 너무 이른 것이어서 오히려 邪氣를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病邪가 陰經에 있을 경우 柴胡를 쓰면 表를 지나치게 傷하게 한다고 하였다<sup>13</sup>. 太陰人과 少陰人의 경우 內部 혹은 陰經에 病이 있을 때 柴胡를 사용하면 表를 傷하게 하여 汗出不止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⑩ 豬肉은 돼지고기로 『東醫寶鑑』에서는 水畜이라 하고, 味甘 혹은 苦하고 性은 寒(혹은 冷)이라 하였으며, 解熱한다고 하였다. 熱이 단혀서 血脈이 弱하고 筋骨이 虛한 것을 다스리며 脈에 들어가고 藥을 죽이고 動風하니 오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14</sup>. 성질이 차서 脾胃가 虛寒하기 쉬운 少陰人이 먹으면 食滯가 있거나 厥證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動風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⑪ 知母는 性이 寒 無毒하고, 味는 苦甘하다. 肺經, 胃經, 腎經에 작용하고, 滋陰降火, 潤燥滑腸하는 효과가 있으나, 脾胃가 虛寒하고 大便이 澹泄한 경우에는 복용을 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脾胃가 虛寒한 경우가 많은 少陰人에게 知母를 투여한다면 腹痛, 泄瀉, 手足厥冷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大毒라고 적어 놓은 듯하다.

⑫ 黃柏은 性이 寒하고 味가 苦하며 無毒하다. 腎經, 膀胱經에 작용하고, 清熱燥濕, 瀉火解毒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陰虛發熱, 骨蒸盜汗 등에 사용하여 退虛熱, 制相火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脾虛泄瀉, 胃弱食少者는 忌한다고 하였다<sup>8</sup>. 太陰人이 黃柏을 복용하여 小便閉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寒性의 黃柏을 少陰人이 먹게 되면 寒氣가 胃를 침범하여 嘔逆이 생기기도 한다. 惡心의 원인으로 熱, 痰, 寒, 虛가 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16) 少陰人은 寒이나 虛가 원인이 되어 嘔逆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⑬ 黃連은 性이 寒하고 味가 苦하며 無毒하다. 心經, 肝經, 胃經, 大腸經에 작용하고, 清熱燥濕, 清心除煩, 瀉火解毒의 효과가 있다. 陰虛發熱, 胃虛嘔惡, 脾虛泄瀉, 五更泄瀉 등의 증에는 慎用하라고 하였다<sup>8</sup>. 脾胃가 虛弱하기 쉽고 氣虛하기 쉬운 少陰人이 黃連을 복용하면, 黃連의 성질이 寒性이므로 脾胃의 虛弱을 더욱 초래하게 되어 痰厥頭痛이나 氣虛頭痛 등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4) 사상체질별 부작용 약물

少陰人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약물로, 葛根, 大黃, 麻黃, 使君子, 生牛肉, 甘遂, 輕粉, 瓜, 靈砂, 梨子, 石膏, 水銀, 柴胡, 豬肉, 知母, 黃柏, 黃連, 蕎麥을 설명하였고, 少陽人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약물로, 葛根, 阜角, 鷄肉, 附子, 人蔘, 沈香을 말하였으며, 太陰人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약물로, 桂枝, 當歸, 甘遂, 靈砂, 石膏, 水銀, 柴胡, 黃柏을 말하였고, 太陽人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약물로, 桂枝, 巴豆를 말하였다.

Table 1. Side Effects of Other Constitutional Herb Medicine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太陽人	
太陰人藥	葛根	○	呃氣	嘔逆	
	大黃	○	泄瀉		
	麻黃	○	口渴, 汗多, 惡寒		
	使君子	○	呃氣		
	生牛肉	○	痢疾		
	皂角	○		嘔逆	
	桂枝	陽毒升	○		陽毒升
少陰人藥	雞肉		○	陽毒發斑	
	當歸	泄瀉	○		
	附子		○	熱升毒, 惡寒	
	人參		○	熱升毒	
	沈香		○	口渴	
	巴豆		○		腹痛, 泄瀉
	甘遂	胸燥煩痛	口渴, 泄瀉	○	
少陽人藥	輕粉		腹痛	○	
	瓜		泄瀉	○	
	靈砂	口渴	手足厥冷	○	
	梨子	◎	呃氣	○	
	石膏	手足厥冷	痰盛泄瀉	○	
	水銀	眩暈	腹痛	○	
	柴胡	汗不止	汗不止	○	
	豬肉		滯動風	○	
	知母		大害	○	
	黃柏	小便閉	嘔逆	○	
	黃連		頭痛	○	
太陽人藥	蕎麥	浮氣生	○	◎	

5) 부작용의 기전과 부위

太陰人 약물중 寒性이거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있는 경우 少陰人에게 대체로 부작용이 있었으며, 葛根, 皂角의 경우에는 少陽人에게도 부작용이 있었다. 주로 부작용은 소화기계에 많았다. 少陰人 약물은 성질이 溫性이어서 少陽人에게 부작용이 많았으며, 소화기계와 피부질환이 많았고 桂枝, 當歸의 경우는 太陰人에게도 부작용이 있었다. 少陽人 약물은 寒性이어서 少陰人에게 부작용이 많았고, 주로 소화기계 쪽의 부작용이 있었고, 頭痛, 眩暈과 같은 신경계 쪽의 부작용이 있었으며, 太陰人에게도 12가지 약물 중 6가지 약물에서 부작용이 생겼다. 太陰人에게 부작용은 소화기계, 피부, 정신신경계, 비뇨기계, 호흡기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로 氣液代謝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太陰人 약물은 蕎麥만 나와 있으며 寒性인 점과 氣의

반발작용에 의한 浮氣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 해당 체질에 적합한 약으로 분류한 것

◎: 『四象醫學』의 분류와 『東武遺稿』에 따른 것

IV. 結 論

太陰人 약물은 保命之主인 呼散之氣를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太陰人 약물을 少陰人이 복용하게 되면 소화기계, 피부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少陰人 약물은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돕는 약물이므로 주로 少陽人에게 피부, 발열, 소화기계의 부작용이 생기며, 少陽人 약물은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돕는 약물이므로 주로 少陰人에게 소화기계 및 정신신경계의 부작용이 생기며, 太陰

人에게 질반정도 氣液代謝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太陽人 藥물은 寒性과 下氣作用으로 少陰人에게 浮氣를 생기게 할 수 있다. 환자가 건강하고 원기가 충실할 때는 藥물부작용이 크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질병이 중할 때는 타 체질藥물에 대한 부작용반응이 강할 수 있다. 또한 타 체질 藥물을 복용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병증을 잘못 판단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분별하는 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藥물과 타 체질 藥물의 부작용을 알고, 임상에서 問診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 V. 參考文獻

1. 이을호.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 지식산업사, 서울, 1995:101.
2. 김명균, 박성식. 사상체질별 藥물의 혼용에 관한 문헌적 연구(동의수세보원 갑오본과 신축본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1):33-44.
3. 김명균, 박성식. 사상체질별 藥물의 혼용에 관한 문헌적 연구 I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5;17(3):22-30.
4. 이태호. 東醫四象診療醫典. 행림서원, 서울, 1941:6, 22-24.
5. 조선민족 사상의학연구소 편. 조선민족사상의학. 여강출판사, 서울, 1991:28.
6. 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의학연구소. 朝醫學. 44-45, 48-49, 53, 61.
7. 고병희 외 16인. 사상의학. 집문당, 파주, 2004:290, 320, 321, 689.
8. 안덕균 외 10인. 본초학. 영림출판사, 서울, 1991:122-123, 148-149, 150, 160-161, 242-243, 249-250, 256, 310-313, 357, 489-490, 532-533, 643, 707.
9. 신민교. 임상본초학. 영림출판사, 서울, 1989:222, 263-265, 474, 518-519, 695.
10. 이체마 저. 동의학연구소 역.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서울, 2003:203.
11. 강소신의학원 편. 김창민 외 97인. 완역 중약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서울, 1998:262-263, 4198-4201, 4940-4941.
12. 許浚 저. 윤석희 외 7인 역. 東醫寶鑑湯液篇. 동의보감출판사, 서울, 2005:2024.
13. 黃宮繡 저. 강운범 외 역. 本草求真. 木과 土, 서울: 1999:304, 521, 544-545, 624.
14. 허준 저. 남산당편집위원회 역. 東醫寶鑑 湯液篇. 남산당, 서울, 1991:1135, 1169.
15.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 2002:263.
16. 유기원 외 11인. 비계내과학. 그린문화사, 서울, 1994:87.